

〈에베소의 오순절 사건〉

목장교재 목자용 지침서

8/13(주일) 설교 내용

사도행전 19:1-7

1.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우리를 향해,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이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혹시 ‘성령충만함’ 을 경험해 보신 분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이 대답이 반드시 ‘성령을 받았냐? or 받지 못했냐?’ 라는 이분법적인 질문으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이 질문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과연 성령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사람들도 신앙생활은 했지만, 바울의 ‘너희가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질문에 도전을 받고, 결국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듯이, 우리도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자는 도전을 주는 질문인 것입니다.

목자님들께서도 ‘예수 믿는 것’ 과 ‘성령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을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 분을 마음 속에 〈영접〉 했습니까?”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하며 신앙의 근본이 되는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나’ 의 정직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 분을 마음 속에 영접했는가?”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고, 피해서도 안되는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목원들과 개인적인 신앙에 대해 정직하고도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누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아직 ‘영접’ 에 대한 주저함이 있는 목원이 있다면, 신앙인으로서 성령충만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임을 명확히 설명해 주시되, 정죄하는 태도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오늘 나눔을 통해 내가 깨달은 것, 혹은 새롭게 다짐하거나 결단한 것들이 있다면 편안하게 나누어 봅시다.

3번 질문은 목원들 개인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결단과 다짐을 이야기할 수 있기 위해 열어둔 질문입니다. 오늘은 언젠가는 다루어야 하는,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받은 도전들, 깨달음들이 무엇인지 나누고, ‘과연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